

現代詩의 自然考

— 새로운 自然觀을 중심으로 —

金 俊 五*

- | | |
|-------------|----------------|
| I. 序 論 | IV. 無意識으로서의 自然 |
| II. 自然의 有限化 | V. 結 論 |
| III. 分裂된 自然 | |

I. 序 論

자연에 대한 태도와 감각은 개인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자연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감각을 느낄 수 있다. 문명화 과정 속에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점점 소외되는 것과 더불어 과거의 자연관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현대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과거 자연관의 소멸은 그러나 자연의 개념 그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한다.

본고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새로운 자연관과 그 시적 양상들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 새로운 자연관을 자연의 非情的 他者性과 反自然性이란 이름으로 밝혀 보았다. 자연의 비정적 타자성은 과거의 자연친화적 태도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자연을 인간의 감정과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는 자연관이었다. 즉 인간과는 다른 이질성과 비인간화의 성격을 띤 자연감각이었다. 그리고 반자연이란 과거의 자연시와 같이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反再現主義 입장에서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실제의 자연을 해체하고 재조립한, 시 속에만 존재하는 자연이었다. 이 인공적 자연 속에서 시인이 노린 것은 자연의 비정적 타자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독특한 비인간적 정조였다. 본고에서 다루게 되는 새로운 자연관은 자연의 有限化 외에 여러 양상이다.

* 釜山大 人文大 助教授

II. 自然의 有限化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구성, 불멸성, 불변성 등을 자연의 속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안주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종교적 차원의 존재로까지 친화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자연관 속의 자연은 사랑과 평화와 질서의 감각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새로운 자연관은 자연과학자가 연구한 자연세계의 진행과 역사가 연구한 인간사의 성쇠 사이의 유추에 근거한다.¹⁾ 물론 자연과학자가 본 자연은 정신적 세계가 아니라 물질적 세계다. 이것은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연이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파괴·변용시킬 수 있는 자연이다. 이 자연과학적 자연의 추이과정이 인간사의 성쇠에 유추된다는 것이 새로운 자연관이 탄생되는 근거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고의 근본 범주는 진행과 변화와 발전인데 자연과학적 자연관이 여기에 유추된다는 것은 항구성과 불변성을 속성으로 한 전통적 자연개념과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자연관이 신이나 인간 정신에 그 존재근거를 둔 것과 달리 자연과학적 자연관이 역사에 그 존재근거를 둬으로써 자연은 유한화되었다.²⁾ 이 자연의 有限化 finitude of nature가 자연의 歷史化이며 이것은 자연을 변화로 보는 것이다. 자연은 물질일뿐만 아니라 변화의 법칙을 가진 것이었다. 사실 과학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변하는 대상이다. 그리하여 공간과 시간의 극소화가 탄생한다. 과거의 자연처럼 영원하고 광대무변한 무한감각은 현대적 자연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현대시에 있어서도 자연은 많이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 변모의 한 특징이 자연과학적 자연처럼 자연의 유한화, 곧 자연의 변화성이다. 현대시인은 과거의 자연과 같은 불변적이고 항구적인 것보다 자연의 변화와 역동성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을 그 자체로 보는 객관적 태도의 시나 자연에 인간적 감정을 투영한 주관적 태도의 시를 가리지 않는다.

1) R.G. Collingwood, *The Idea of Natu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1945, p.9

2) 같은 책 p.154~156 참조

구름을 휘몰아 허공을 달리며
 숲과 지붕을 마구 덮치고 짓밟으며
 시머리 자진머리 온갖 장단과 가락을
 마음대로 뽑는 名唄이다가

꽃가루와 열매를 옮겨
 은밀한 입김으로 싹트게 하다가
 애무하며 흔들어
 못전디게 자라게 하다가

강물을 넘치게 하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며
 일체를 부수고 쓸어버리는
 行動으로 나타내 보인다

(李仁石, 「바람」의 일부)

바람은 대표적인 역동적 이미지다. 그것은 생성과 파괴의 양면성을 지닌 “行動”이다. 이 행동은 때로 인간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敵意의 날폭한 힘을 부리기도 한다. 여기서 고요하고 정적인 자연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자연친화 일변도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자연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객관적이고 다양하다. 이것은 자연과학적 현상을 별나게 변용시키지 않은 채 자연의 변화성에 초점을 둔 시인의 관심과 더불어 새로운 자연의 양상으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한다.

자연의 변화성은 그만큼 과거처럼 안정과 평화의 감각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시인의 내면적 갈등을 구현한 것처럼 어두운 정서를 환기하기도 한다.

겨울 육지에서 불던 바람이
 바다끝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 셨물이다 셨물
 마른 가지들이 산 기슭에서 속삭이고
 허망하게 갈매기가 울다가
 파도와 함께 부서진다.
 아 밀물이다 밀물
 갈매기들은 사라지고 이윽고
 모든 빨발이 바다가 되어 무너지

바람을 빨아 들이고 있고
빈 가지들이 밤에 잠기어서
개처럼 앓고 있다

(李裕燮, 「草落島」 4)

겨울과 밤이라는 자연의 시간적 배경만이 음산한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속삭이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자연의 움직임들이, 그 변화성이 풍경을 을췌년스럽게 한다. 여기서의 자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상하게 변화하고 움직이는 자연이다. 그것은 영원히 본질적인 것을 표상하던 과거의 자연과는 무관한 자연이다.

이런 자연의 유한화 속에서 과거의 자연지에서 느낄 수 있는 賞自然의 즐거움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자연은 이미 즐거움의 매개물이 아니다. 현대시인은 花朝月夕의 아름다움을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현대시인의 자연은 아름답지가 않다. 오히려 추악하기조차 하다.

餘糧山아 餘糧山아, 비가 대낮에
낮달을 안고 누웠구나
머리칼 다 빠지고
눈도 귀도 먹었구나.
忠武市 東湖洞
배꽃이 새로 피는데
餘糧山아 餘糧山아, 너는 대낮에
낮달을 안고 누웠구나
바래고 사그라지고, 낮달은
네 품에서 오래오래 살았구나

(金春洙, 「낮달」)

시인이 본 餘糧山은 머리칼도 빠지고 눈도 귀도 먹은 노쇠해진 산이다. 그리고 이 산에 안겨 있는 낮달도 바래지고 사그라져 있다. 모두 볼품 없이 추악해진 산들이고 이런 자연들이 새로 피는 배꽃보다도 더욱 시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연의 변화가 진화와 무성함이 아니라 퇴화와 닳아짐이다. 자연에 대한 시인의 감정은 즐거움이 아니라 연민이다. 결국 자연

의 변화는 시인에게 비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아니, 시인의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의식이 자연의 변화로써 표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태도는 자연의 유한화를 다룬 현대시에서 지배적 현상이 되고 있다.

사실 자연은 현대시에서 흔히 비극적 모습을 띤다. 여기서 '분열된 自然'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자연이 등장한다.

Ⅲ. 分裂된 自然

현대의 자연은 파괴되어 조각이 나뉘린 고뇌로 가득 찬 자연이다.³⁾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비정하게 파괴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현대시에 수용되고 있다. 자연의 파괴감은 이제 현대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자연감각이다. 이런 비극적 자연감각은 우선 자아분열의 내적 갈등을 상징한다. 자연의 해체는 바로 자아해체의 상관물이다. 이것이 李箱詩의 자연이 되고 있는 내포다. 李箱詩의 자연은 그의 내적 갈등을 표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찢어진 壁紙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幽界에 絡繹되는 秘密한 通話口다. 어느 날 겨울 가운데의 鬚髯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쳐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通話口는 손바닥으로 꼭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일어서 드키 나비도 날라가리라. 이런 말이 決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

(李箱, 「詩第十號」)

날개가 축 쳐진 나비는 찢어진 벽지에 간신히 붙어 있다. 그것은 결코 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절망적인 극한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나비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화자 자신이다. 그것의 고통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요, 고뇌다. 이렇게 자아분열의 비극적 현대인상을 자연에 흡수시킴으로써 李箱의 자연은 현대적 의의를 획득한다.

3) Alex Preminger,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 554

자연의 파괴감은 자아의 내적 고뇌만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엘리엇의 「荒蕪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속화되고 타락된 현대문명사회의 비판을 담고 있다. 그것은 기계문명이 가져 온 정신의 황폐화와 비인간화를 고발한다. 여기서 파괴된 자연은 더욱 커다란 의의와 문제를 지닌다. 현대시는 이 파괴된 자연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병적 징후들을, 그 부조리와 혼돈을 표현한다.

眩氣症나는 활주로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突進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물은 육체의 破片들을 굵어본다

機械처럼 灼熱한 작은 심장을 축일

한모금 생물도 없는 虛妄한 廣場에서

어린 나비의 眼膜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

하얀 미래의 어느 地點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地標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神도 奇蹟도 이미

昇天하여 버린 지 오랜 流域—

그 어느 마지막 終點을 향하여 흰 나비는

또한번 스스로의 神話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金奎東, 「나비와 廣場」)

나비의 짝이 되는 것은 꽃이요 그의 세계는 꽃밭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나비는 꽃이 아니라 비정한 기계와 대결하고 있으며 꽃밭이 아니라 “眩氣症나는 활주로”와 “한모금 생물도 없는 虛妄한 廣場”이 그의 실존적 상황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나비는 “피물은 육체의 破片들을 굵어”보면서 “突進의 방향”도 잊어 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나비에겐 기계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神도 奇蹟도” 없다. 李箱詩의 나비처럼 절망적 극한상황 속에서 삶의 최소한의 방향감각마저 상실한 채 고뇌하고 있다.

자연의 이런 파괴는 단순히 자연 그 자체의 파괴는 아니다. 문명비판을 담은 ‘파괴된 자연’의 자연은 인간의 이념과 본질, 적어도 인간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파괴된 자연의 회복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이란 의의를 가진다. 시인의 나비에 대한 연민은 그러므로 상실된 인간성에 대한 그의 고통이다.

상처받은 자연의 이런 파괴는 한국 현대시의 경우 무엇보다도 역사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木月은 그의 시집 「無順」(三中堂, 1976)에서 <新自然>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新自然>의 자연이 「靑鹿集」시대의, 그의 초기 자연시의 자연으로부터 현격히 변모된 사실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木月詩의 변모는 바로 이런 자연의 변모에서도 용이하게 감지할 수 있다. <新自然>의 자연은 모두 역사적 시련 가운데 파괴되고 고통받는 자연이다.

눈으로 덮인 前方의 저녁은
포도빛으로 저문다

休戰線 안에서는
꽃잔동이 얼어붙은 여우들이 헤맨다

나무 사이로 누벼
돌개울 上流로 사라졌다

가시덤불 깃든 까투리가
놀라 날아오른다

날이 밝으면
피렇게 살아나는 발자국……

搜索網을 좁혀가는
그물 안에서

비명을 삼키며 명감열매가
 피방울같이 눈속에서 얼얼을 내민다

(朴木月, 「발자국」)

여기서 자연은 항상 불안과 공포로 팽팽히 긴장된 휴전선의 자연이다. 콧잔등이 얼어붙은 여우들이 헤매고 날이 밝으면 퍼렇게 살아나는 발자국의 공포감은 역사적 현실의 긴장감이다. 일체말기 씌어진 그의 초기 자연시들, 이를테면 「靑노루」, 「나그네」, 「산그늘」 등의 작품들 속의 자연은 평화롭고 안정된 자연이었고 이 자연들은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고 전통적 정서를 환기했다. 그러나 <新自然>의 자연은 射程距離 안에서 산철쭉이 피고, 늙은 소나무 줄기에 破片이 박히는 (「산철쭉」에서) 것처럼 역사적 시련을 받고 있는 자연이고 이 파괴된 자연은 민족적 정감과는 거리가 먼, 살벌하고 팽팽히 긴장된 공포감을 환기하고 있다. 자연 속에 비극적인 역사적 현실이 수용된 자연이 木月의 신자연이다. 그리고 초기 자연시에는 일체말의 현장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일체감이 나타나 있지만 신자연에서의 그것은 역사적 시련을 공통된 존재근거로 한 일체감이 나타나 있다.

그 고된 시련은
 나와 나의 형제의 것이다 (「산철쭉」)

이제 山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는 自然 (「山에서」)

결국 木月은 신자연을 통해 우리의 비극적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체말 그의 초기 자연시에서도 진작 나타나야 했던 것이다.

문명과 역사에 의한 자연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런 윤리적 의미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제기하는 새로운 자연개념이 현대시에서 대두된다. 무의식으로서의 자연이 그것이다.

IV. 無意識으로서의 自然

현대의 정신분적은 무의식의 세계라는 인간의 새로운 내면 공간을 열어 주었다. 이 새로운 내면공간이 모든 자연을 소생시키면서 자연시를 다시 가능케 했다.⁴⁾ 왜냐하면 무의식 개념은 인간 정신의 심층을 동물적 차원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id는 자아와 초자아와 더불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한 요소다. 무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것은 사회적 관습, 윤리, 도덕의 억압 없이 리비도 즉 性本能(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행동하려 할 때 필요한 에너지로서 id와 구별된다.)의 욕구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비도덕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다. 자아와 세계의 안전이나 결과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한다. 요컨대 그것은 인위적인 것과 대극한다. 이 무의식적 본능이 동물의 의식적 차원과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의 이미지는 무의식적 충동의 표출기능을 다하면서 새로운 자연개념을 탄생시킨다.

사실 동물은 과거의 자연시에서조차 식물이나 비생명적 자연에 비해서 주목받지도 못했고 같은 값어치를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현대시에 있어서 동물의 재발견은 원시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한 방법으로서 채용되면서 인간의 보다 깊은 내면 세계를 구현하는 역할에서 그 의의를 지니게 된다.

무의식과 결부된 동물은 그만큼 관능적이고 사악한 자연이 된다. 고양이와 뱀은 대표적인 악마적 이미지로서 인간세계의 타락과 부조리를 나타낸다.

어느날 내 영혼의
 낮잠터 되는
 사막의 위 숲 그늘로서

4) Robert Langbaum, 『The New Nature Poetry』, The Modern Spirit, (Chatto & Windus, London, 1970) p.113

파란 털의
 고양이가 내 고적한
 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이애, 너의
 온갖 懊惱, 運命을
 나의 끊는 섯같은
 愛에 살짝 삶아주다

(黃錫禹, 「碧毛의 猫」 일부)

파란 털의 고양이는 화자의 내면에 있는 본능이 투사된 자연이다. 그래서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자아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화자의 의식(선)과 무의식(악)의 대화양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쾌락의 원칙을 따르는 무의식적 충동에 따라 그가 지닌 “온갖 懊惱”를 관능적 타락 속에 해소시키려 한다. 따라서 화자의 본능은 동물의 차원으로 하강하여 파란 털의 고양이라는 악마적 이미지를 획득한 것이다.

李箱詩의 동물을 이런 내적 갈등과 타락의 양상을 좀 더 심화시킨다. 李箱은 동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을 야유하고 비하시키는 매조키즘적 갈등을 보인다.⁵⁾ 무의식이 동물의 의식의 차원과 연결된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로 전락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李箱의 자조가 발생한다.

A) 屋上庭園, 猿猴를 흉내내고있는마드무아젤. (「建築無限六面角體」의 일부)

B) 나의猿類에의進化 (「出版法」의 일부)

C) 나는전디면서女王蜂처럼受動的인몹시를꾸며보인다. 나는已往이주춧돌밑에서平生이怨恨이거니와新婦의生涯를浸蝕하는내陰森한손저거미를 불개아미와함께잊어버리지않는다. 그래서新婦는그날그날까무러치거나雄蜂처럼죽고죽고한다. (「生涯」의 일부)

A)에서 이상은 인간을, B)에서는 자신을 원숭이와 결부시킴으로써 인간을 야유하고 자신을 야유한다. 이상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회화화하는 태도의 회극을 보여준다. 이 태도의 회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C)에서 “나”는 성도착적 증세를 보이고 있다. “新

5) 吳生根, 動物의 이미지를 통한 李箱의 想像의 世界(新東亞, 77. 2月號)

婦”는 “雄蜂”이고 “나”는 역설적으로 “몹시물꾸며” 보이는 “女王蜂”이다. “신부”는 능동적이나 “나”는 수동적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주춧돌 밑에서 孳生 怨恨”인 존재가 되었다. 성도착의 이런 태도의 회극을 통해 이상은 타인과의 갈등을 보일 뿐 아니라 이 갈등 속에 자신마저 야유하는 자기파괴적 자기인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상은 동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을 코믹화하고 세계를 코믹화하고 그리하여 삶 자체를 코믹화한다. 그의 소설이나 수필에 등장하는 동식물들도 대부분 인간과 자신의, 그리고 인간 관계의 야유에 기여한다. 특히 그는 성본능을 환기하는 동물의 이미지로 인간을 격하시킨다. 그의 내적 갈등은 언제나 자신과 세계와의 갈등을 대신하고 있으며 동물의 이미지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능의 문학적 내지 현대적 가치는 그것이 삶의 자연성을 구현하는데 있다.⁶⁾ 본능의 힘에 대한 시인의 호소는 이성에 의해 죽어가는 삶을 회복하여 생명을 부여하는 행위가 된다. 未堂은 본능이 발산하는 생명부여의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 뱀의 이미지를 채용했다. 그는 뱀의 이미지를 통해 좀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본능을 보여준다.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정그러운 몸뚱어리냐.

꽃대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 내던 達辯의 헛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날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이 물어뜯어,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 芳草入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6) R.M. 알베레스, 二十世紀의 知的 모험 (鄭明煥譯, 乙酉文化社) p.25

石油 먹은 듯…… 石油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 부다.
꽃대님보다도 아름다운 빛……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스머라, 배암!

우리 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운
입술…… 스머라, 배암 (徐廷柱「花蛇」)

무의식적 본능은 쾌락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영역으로까지 인간을 끌고간다. 그것은 논리를 초월한 모순된 것이다. 이 모순은 화자의 뱀에 대한 태도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화자에게 뱀은 아름다우면서도 징그러운 존재다. “바늘에 꼬여 두를까 부다”하고 잔인성이 발휘되다가도 “꽃대님보다도 아름다운 빛”이라고 감탄해 마지 않는다. 그의 태도는 새디즘적이면서 매조키즘적이다. 더구나 기독교의 에벤신화를 채용한 이 작품은 이 신화가 가진 원래의 의미, 즉 인간의 원죄의식을 통해 에덴의 복귀를 그 궁극적 목표로 하는 윤리적 의미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푸른 하늘이다…… 물어 뜯어라”라고 부르짖음으로써 인간을 단죄한 하늘(신)에 오히려 도전한 데 있다.” 그래서 화자가 “돌팔매를 쏘면서” 뱀의 뒤를 쫓는 이유는 인간을 타락케 한 뱀에 대한, 그리고 이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이브에 대한 저주 때문이 아니다. 온갖 인위적인 윤리의 범주를 벗어나 자연의 삶 속에 묻히려는 욕망 때문이다. 따라서 뱀의 뒤를 쫓는 행위는 본능에 따르는 행위고 그래서 화자는 石油를 먹은 듯 숨이 가쁜 황홀경 속에 몰입된 것이다.

이 동물시의 특징은 그 넘치는 생명력이다. 자연시는 항상 생명의 원리에 관한 것이랴 하는데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이 원리는 쇠퇴해졌던 것이고 자연시도 소멸의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⁸⁾ 특히 자연과학은 삶의 보다

7) 金烈圭, 近氏文學과 傳統, 韓國文學의 傳統과 變革(西江大 人文學科學研究所刊) p. 15

8) Langbaum의 상계서, p.112

고상한 영역에서도 인간의 정신을 추방해 버렸다. “나의 知識이 毒한 懷疑를 救하지 못하고 / 내 또한 삶의 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 病든 나무 처럼 부대길 때”(柳致環, 「生命의 書」 일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원시적 생명력이다. 인간의 본능은 바로 이 원시적 생명력이다.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병들었을 때 이 의식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은 생물뿐만 아니라 비생명의 무기물에 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공간에 생명력을 준다. 그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움직임과 일체가 되게 하는데 무의식적 본능이 선악의 원리적 범주 이전에 가치를 띠게 되는 이유가 있다. 동물시의 현대적 의의도 여기있다.

V. 結 論

지금까지 새로운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에 자연이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자연의 有限化, 分裂된 自然, 無意識으로서의 자연 등은 새로운 자연의 양상들로 현대시에 나타나 있었다. 자연의 감각이 시대감각을 전달하듯이 과거와는 다른, 이런 새로운 자연은 상황과의 관련속에서 당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자연은 또한 새로운 자연시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우리에게 아직 낮이지 않은 動物詩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앞으로 현대시 연구의 한 과제라고 본다.